



내용문의	오은진 선임연구위원 ☎ 02-3156-7126
배포담당	황애리 언론담당 ☎ 02-3156-7296
배포일시	2026. 6. 29.(월) 오전
보도시기	배포 즉시

※ 매수 : 총 4쪽

## 디지털 돌봄기술, 돌봄 인력의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도입해야

###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'디지털 돌봄기술 관련 실태조사' 주요 결과 발표

장기요양기관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률은 시설 11.0%·재가 3.3% 불과  
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10명 중 6명 이상, “몸에 무리 덜 가는 기술 도입 필요”

### <연구 소개>

이 연구는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의 필요성, 도입현황,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. 특히 젠더친화적 관점에서 디지털 돌봄기술이 얼마나 개발·활용되는지를 확인하여 정책개선을 제안하고자 함.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종숙)은 「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 연구(II):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전략 연구」(책임 연구자: 오은진 선임연구위원)에서 실시한 ‘디지털 돌봄기술 관련 실태조사’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.\*

### <조사 개요>

구분	제공기관	제공인력
조사 대상	돌봄서비스 제공기관(713개)	돌봄서비스 제공인력(1,015명) 남성 : 96명, 여성 919명
표집 단위	기관	개인
조사 방법	개별면접조사	
조사 대상 지역	전국	
조사 기간	2025.7.17. - 9.5.	

\* 본 내용의 주요 출처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음.  
 출처: 오은진·정가원·박수범·이민호·안신혜·강경주·노우리·장민경·최윤선(2025). 「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 연구(II):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전략 연구」. 서울: 한국여성정책연구원.

□ 먼저, 장기요양기관의 일반 디지털 기기 활용률은 높았지만, 돌봄로봇 등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은 낮은 수준이었다.

○ 요양급여 제공기관에서는 스마트폰, 태블릿, PC 등 일반 디지털 기기 활용률이 85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돌봄로봇 등 디지털 돌봄기술의 전체 도입률은 시설급여기관 11.0%, 재가급여기관 3.3%에 그쳤다.

※ 시설급여기관 : 시설 입소, 재가급여기관 : 가정방문

○ 시설급여기관에서는 요양업무 지원(15.9%), 실내 이동지원(12.8%), 기능훈련 지원(10.2%)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되어 있었고, 재가급여기관은 전반적으로 도입률이 낮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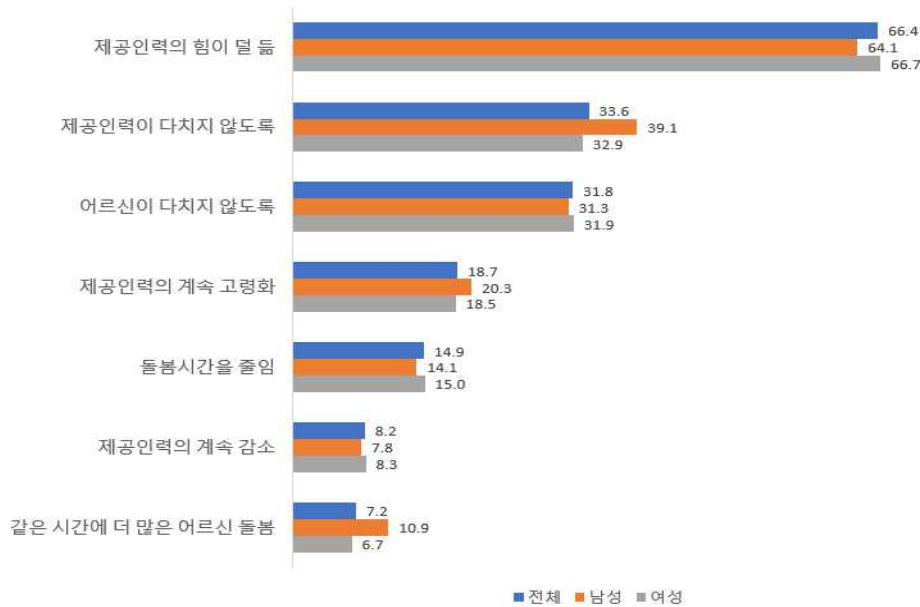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률(상위 5개)

□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은 디지털 돌봄기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○ 제공인력은 돌봄로봇 등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 필요성에 대해 56.3%(매우 필요하다+다소 필요하다)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, 남성(66.7%)이 여성(55.3%)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.

○ 디지털 돌봄기술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‘돌봄제공인력의 힘이 덜 듭’이라는 응답이 66.4%로 가장 높았으며, 여성(66.7%)과 남성(64.1%)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. 다음으로는 ‘돌봄 제공인력이 다치지 않도록’ 이 33.6%(여성 32.9%, 남성 39.1%), ‘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’ 이 31.8%(여성 31.9%, 남성 31.3%) 순

이었다. 특히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, 이들의 체력적 한계를 보완하고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돌봄로봇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



- 오은진 선임연구위원은 “디지털 돌봄기술은 돌봄 인력을 대체하기보다, 고령화된 인력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” 라고 설명했다.
- 또한 “디지털 돌봄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.” 라고 밝혔다.
- 연구진은 핵심 과제로 ▲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술 도입, ▲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와 기관 도입 비용 지원, ▲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을 인력 수 중심에서 서비스 질·안전성 중심으로 개편, ▲ 돌봄로봇 관리·교육 전담 인력 양성, ▲ 사고 책임과 보험체계 정비, ▲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, ▲ 현장 인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

제공과 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.

- 김종숙 원장은 “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, 돌봄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현장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다.” 라며,
  - “디지털 돌봄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, 돌봄 인력이 더 안전하게 일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” 라고 강조했다.
  
- 이번 보도자료에서 다룬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-발간자료-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.

<p><b>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 연구(Ⅱ):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 서비스 전략 연구</b>   과제 책임자 :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<a href="https://kwdi.re.kr/publications/reportView.do?p=3&amp;idx=133652">https://kwdi.re.kr/publications/reportView.do?p=3&amp;idx=133652</a></p>
---